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2026. 11. 5.[목]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29
차도순 국장 02-6788-3201 / 신석우 선임비서관(송재봉의원실) 02-784-7380

소상공인의 날, 국회 앞에 선 자영업자 · 라이더…

"플랫폼 3법 '온라인플랫폼법 · 배달플랫폼법 · 상생협력법' 연내 처리하라"

2026년 11월 5일 (목) 10:00, 국회 본청 앞 계단

- **더불어민주당 품격민생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 공동주최**
- **우원식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최소한의 안전망"… 민병덕 "플랫폼 민생 3법 반드시 통과"**
- **소상공인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부담에 버티기 어려워"… 라이더 "소상공인과 갈라치기 안 돼"**
- **온라인플랫폼법·배달플랫폼법·상생협력법 이번 정기국회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품격민생위원회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국회 본청 앞에서 「플랫폼 민생입법 촉구대회」를 열고 온라인플랫폼법 · 배달플랫폼법 · 상생협력법 등 플랫폼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 플랫폼 비용 부담이 소상공인에게 집중되고, 플랫폼 노동자 역시 낮은 배달단가와 불안정한 거래구조에 놓여 있다며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넘어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생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온라인플랫폼법, 배달플랫폼법, 상생협력법은 누구에게 일방적인 희생이나 특혜를 요구하는 법이 아니다" 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며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합리적인 거래 기준을 마련하는 최소한의 안전망" 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핵심 민생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은 "비용은 소상공인과 노동자에게 넘기고 이익은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며 "온라인플랫폼법으로 불공정을 막고, 배달플랫폼법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상생협력법으로 입점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플랫폼 민생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고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도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에 배달수수료와 광고비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며 “무료배달 비용 역시 결국 점주에게 전가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아 점주들이 함께 협상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며 3대 민생입법의 연내 처리를 요구했다.

라이더 단체들은 소상공인과 배달노동자를 서로 대립시키는 방식으로 플랫폼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은 “민생 3법은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입법 취지가 훼손돼서도 안 된다” 며 내년 소상공인의 날에는 입법 촉구가 아닌 소상공인과 배달노동자가 함께하는 축제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도 “소상공인과 라이더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구조를 원하지 않는다” 며 “서로 연대해 플랫폼 안에서 함께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날 처리를 촉구한 온라인플랫폼법은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계약서 교부, 계약 변경·해지 사전통지, 판매대금 보호, 불공정거래와 보복조치 금지, 분쟁조정 등 플랫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달플랫폼법은 음식배달플랫폼의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 비용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영세 입점업체 보호, 우대수수료 도입, 표준계약서 마련과 배달종사자의 안전·권익 보호 등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와 정산기한 등 거래실태를 조사·공표하고 플랫폼의 상생수준을 평가하는 한편, 플랫폼과 입점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생협의체 설치와 입점사업자의 데이터 활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의 날에도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국회 앞에서 입법을 요구해야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며 “온라인플랫폼법과 배달플랫폼법, 상생협력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끝)

[참고자료] 행사사진


국회와 함께 여는
국회 입법박람회
11.5.(목)-6.(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배달수수료상한제도입
민생위기
플랫폼법
국회는 온라인플랫폼법·배달플랫폼법·상생협력법 연내 처리하고,
정부는 소상공인종합대책 즉시 마련하라!
일시 | 2026년 11월 5일 (목) 10:00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자영업자 다 죽는다
온라인플랫폼법 즉각 제정
쿠팡·배민 갑질 OUT!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민생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소상공인종합대책 수립하라!
회는 온라인플랫폼법·배달플랫폼법·상생협력법 연내 처리하고,
정부는 소상공인종합대책 즉시 마련하라!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